

Korean Trail 74th Story

단양 느림보강물길 강줄기 따라 흐르는 풍류·낭만·스릴

충북 단양에는 ‘느림보길’이라 부르는 도보여행길이 있다. 휘휘 도는 남한강 줄기를 따라가는 ‘느림보강물길’, 계곡과 숲을 통과하는 ‘느림보유람길’, 소백산자락을 감아 도는 ‘소백산자락길’이 그것이다. 수려한 풍광을 감상하며 느릿느릿 걷기 좋은 길이어서 붙은 이름인 듯하다. 이 중 남한강 줄기가 어깨동무하는 느림보강물길을 걸었다. 그 길은 풍류와 낭만, 치유와 짜릿함이 있는 길이었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이향정에서 바라본 도담삼봉



느림보강물길
은 총 17.3km로 5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거
리는 꽤 되지만 급격한 오
르내림 없이 산허리, 강변도
로를 따라 코스가 조성돼 약간의
지구력과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누
구나 도전할 수 있다. 수려한 남한강이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멀리 소백산
줄기가 펼쳐져 가슴이 탁 트이는 개방감도
맛볼 수 있다.

느림보강물길은 삼봉길(2km), 석문길(3.8km), 금
굴길(2.3km), 상상의 거리(6km), 수양개역사문화길
(3.2km)로 구성돼 있다. 선사시대 유적지인 금굴에서
고수령으로 이어지는 등산길인 금굴길을 뺀 나머지는
모두 길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 중 체력과 주변 풍광
을 고려해 삼봉길~상상의 거리~수양개역사문화길 구간
을 선택했다.

잔잔한 물줄기 평온한 삼봉길

도담삼봉주차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걷기 시작했다. 멎은 듯 고요한
강물 가운데 커다란 바위 3개가 솟아 있다. 단양팔경 중 으뜸으로 꼽
히는 도담삼봉이다. 조선의 기틀을 다진 삼봉 정도전에 관해 일화가
전해지는 곳이다.

도담 삼봉은 원래 강원도 정선의 삼봉산이 홍수 때 떠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정선 사람들은 삼봉에 대한 세금을 요구했다. 어린 정도전
은 “삼봉이 물길을 막아 오히려 이곳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후 정선 사람들은 더는 삼봉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한쪽에는 의자에 앉아 삼봉을 바라보는 정도전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동상 뒤편에는 도담삼봉의 역사와 전설, 단양팔경, 백두대간, 자연동
굴 등을 소개하는 ‘삼봉스토리관’이 있다.

정도전 동상 뒤편 계단을 오르면 삼봉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
담삼봉과 시내를 잇는 이 길은 도담삼봉 옛길로 지금은 사람과 자
전거, 마차만 다닌다. 가끔 도담삼봉을 찾는 관광객을 실은 마차
가 또각또각 지날 뿐이다.

다리를 건너 후 터널을 지나면 왼편 언덕에 있는 이향정(離鄕
亭)으로 향하는 계단이 나 있다. 1980년대 충주댐 건설로 마
음이 수몰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을 위해 건립한 정
자다. 이향정에 오르자 도담삼봉이 발아래 펼쳐진다.



퇴계 이황이 읊고, 단
원 김홍도가 화폭에 담았
던 바로 그 풍경이다.

퇴계는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옥
같이 맑은데/ 석양의 도담삼봉엔 저
녁놀 드리웠네/ 신선의 뗏목을 취벽에
기대고 잘 적에/ 별빛 달빛 아래 금빛 파
도 너울지더라”고 노래했다.

쉬어 가기 좋은 시내 구간

강줄기를 따라 도담삼봉 옛길을 산책하듯 거
닐고 삼봉대교를 지나친 후 단양생태체육공
원으로 접어들었다. 이곳부터는 ‘도시의 낭만
을 걷는 길’이란 부제가 붙은 ‘상상의 거리’다.
강변 정취를 감상하고 도심 풍경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다.

강 너머 금굴이 건너다보이는 단양생태체육
공원 길에는 때마침 색색의 야생화가 꽃망을
을 터뜨리고 있었다. 계란 프라이 모양의 개망
초, 샛노란 달맞이꽃, 푸른 꽃 양중맞은 닭의장
풀, 붉은 꽃잎 화사한 등근잎유홍초 등이 앞다퉈
매력을 뽐내고, 강아지풀은 바람에 흔들거리며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든다.

데크 길을 지나면 이제 시내 구간이다. 국내 최대
민물고기 수족관인 다누리아쿠아리움, 마늘순대·
만두·통닭·흑마늘빵 등이 여행자를 유혹하는 구경
시장 등이 있어 쉬어가기 좋다.

한적하게 걷기에 집중하고 싶다면 시내 도로보다는
강변을 따라 걷는 것이 좋다. 길에는 붉은 장미로 치장
된 장미소공원과 장미터널이 있고, 일부 구간은 짙아
지른 암벽이 이어지고 커다란 나무가 하늘을 가린 데
크 길로 꾸며져 있다.

1.2km에 이르는 장미터널은 덩굴장미, 줄기장미, 사계
절장미 등 장미 1만5천여 그루가 식재돼 있다. 상상의
거리는 총 길이가 꽤 되지만 곳곳에 쉼터와 벤치가 있
어 쉬엄쉬엄 걷기 좋다.



단양생태체육공원에서 시내 구간으로 이어지는 데크 길



장미터널과 남한강자전거길



벼랑을 따라 이어진 잔도



아슬아슬 스릴 넘치는 잔도

마지막 구간은 수양개역사문화길이다.

이 길은 벼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잔도(棧道)로 시작한다. 잔도에 들어서자 벼랑 허리쯤을 따라 허공에 매달린 데크가 굽이굽이 이어진다. 오른쪽엔 가파른 절벽, 왼쪽엔 푸른 물줄기를 끼고 허공을 걷는 기분이 꽤 그럴싸하다. 일부 구간에는 강물이 들여다보이게 바닥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했다. 1.2km의 잔도를 지나면 최근 단양의 명물이 된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가 나타난다. 만학천봉에 조성된 달걀 모양 전망대로 남한강과 단양 시내, 소백산 등 수려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집와이어와 알파인코스터도 즐길 수 있다.

수양개역사문화길은 강변을 따라 이어진다.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매곡터널을 지나거나 임도로 언덕을 넘은 후 도로와 나란한 숲길을 한참 걸으면 초록 이끼로 가득한 풍광이 펼쳐진다. 일명 '이끼터널'이다. 길 양쪽에 비스듬히 설치된 옹벽이 이끼로 가득 뒤덮여 붙은 이름이다. 옹벽에는 방문객이 새겨놓은 각종 문구가 한가득하다.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기념 사진을 찍는 이들도 볼 수 있다.

이끼터널을 지나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과 수양개빛터널이 나온다. 전시관에선 수양개와 금굴, 구낭굴 유적 등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 석기 유물과 동물 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수양개 터널을 복합멀티미디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수양개빛터널도 방문하기 좋다.

밤에 남한강 물길을 따라 조성한 야경팔경을 감상하며 걷는 것도 좋다. 도담삼봉, 고수대교, 양백폭포, 양방산전망대, 수변무대, 팔경거리, 관문조형물, 상진대교 등이 밤이 되면 화려한 빛으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⑦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매곡터널



옹벽에 이끼가 가득한 이끼터널



1 주차장에서 바라본 도담삼봉



2 관광객들이 삼봉관광마차를 타고 도담삼봉 옛길을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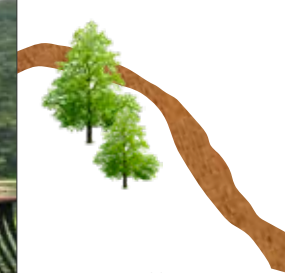
3 삼봉길에 있는 폭포를 형상화한 트릭아트



4 상상의 거리에 있는 수변무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다.



5 봄과 여름이면 붉은 장미가 화려하게 장식하는 장미터널



6 도심에서 잔도로 가는 길에 있는 물고기 조형물



7 벼랑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잔도가 설치돼 있다.

8 이끼터널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방문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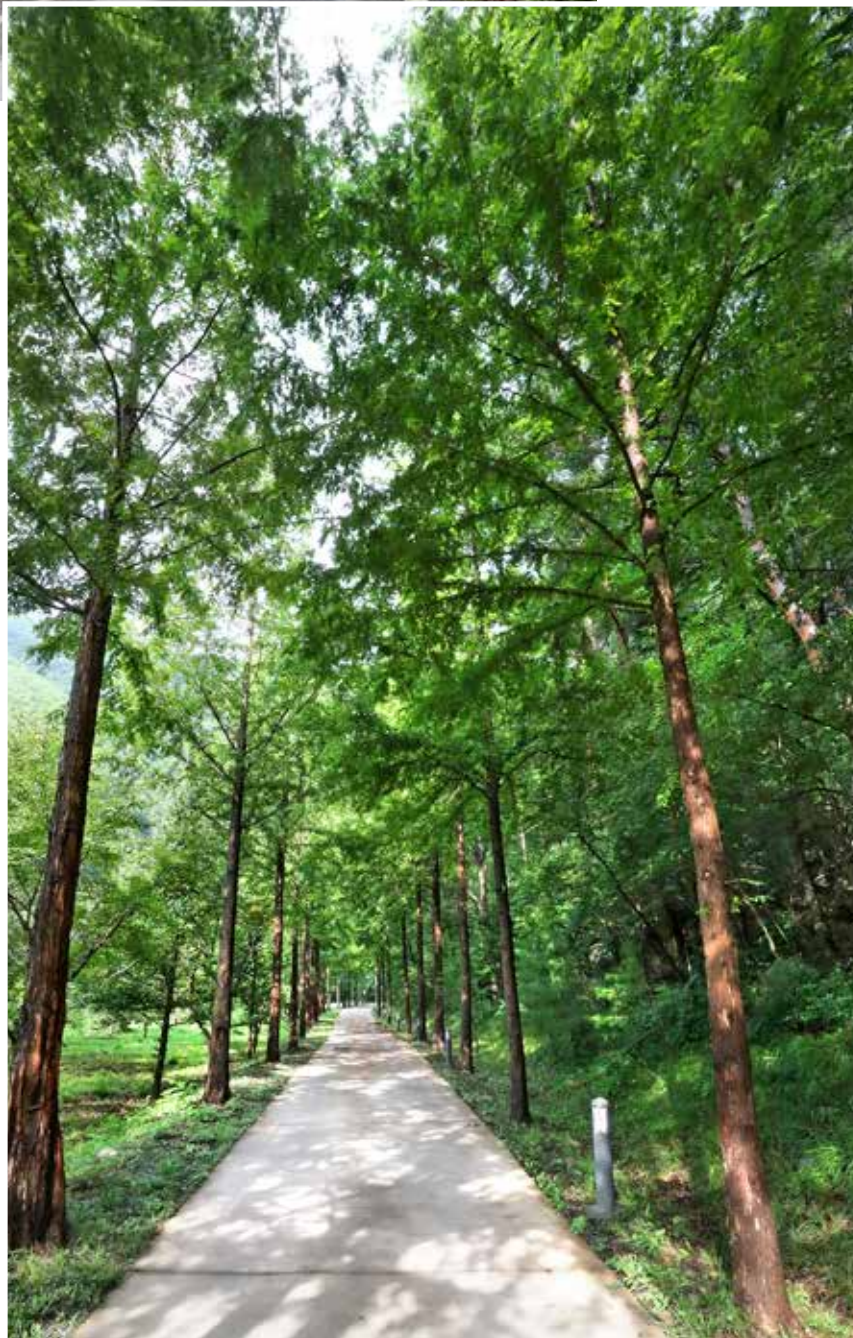
숲이 부른다



소선암자연휴양림 산자락에 둘러싸인 평온한 휴식처

소선암자연휴양림은 단양팔경에 속하는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 있는 단양천 하류 부근, 두악산(해발 723m) 자락에 있다. 그곳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 고요하고 평화롭다. 최근 도보여행길로 인기가 높은 ‘느림보유람길’ 1구간 선암골생태유람길이 이곳을 지난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소선암자연휴양림은 단양읍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의 단성면에 자리한다. 남한강 줄기를 따라 이동하다 구불구불 계곡 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다 보면 소선암공원 맞은 편에 자리 잡고 있다. 계곡 주변으로 두악산(723m), 덕절산(781m), 사봉(879m) 등 봉우리들이 에워싸고 있어 깊은 산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휴양림이 들어선 두악산은 ‘소금무지산’이라고도 불린다. ‘단양’이란 지명이 화마를 부른다 해서 읍내 중앙에 못을 파고, 두악산에 향아리 3개를 묻어 그 중 가운데 향아리에는 소금을, 좌우 향아리에는 한강수를 부었더니 화재가 없어졌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즉 두악산은 예로부터 단양을 수호하는 영험한 산으로 알려졌다.

소선암자연휴양림은 앞으로 폭이 넓은 계곡이 흐르고 야트막한 봉우리들이 가로로 펼쳐져 있어 풍광이 수려하다. 계곡을 따라 걸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고, 휴양림 뒤쪽으로는 두악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이어진다.

소선암자연휴양림은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해 질 녘 구름이라도 낮게 깔리면 신비롭고 황홀한 황금빛 풍광이 시선을 빼앗는다. 숙소는 숲속의 집, 통나무 집, 산림복합휴양관, 산림문화휴양관, 백두대간 문화휴양관 등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4명 정도가 사용하기 적당한 통나무 집, 14평형·16평형·20평형 등 다양한 크기의 숲속의 집이 있다. 콘도 형태의 산림복합휴양관은 7평형, 14평형, 30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백두대산 녹색테마체험장에는 숙소와 목재체험관, 놀이터가 있다. 목재체험관에선 목재용품 제작 방법을 배우고

열쇠고리, 도마, 액자, 책꽂이, 휴대전화 올림통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민물매운탕, 토종닭·오리 백숙, 두부전골, 치킨과 생맥주, 아침 식사 등을 먹을 수 있는 식당과 아이스크림, 과자, 얼음 등을 파는 매점도 있다. **Y**

Tip

숙소는 인터넷(<https://sof.cbhuyang.go.kr:452/>)으로 예약하지만 사용료는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입실 일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토요일, 공휴일, 7~8월은 성수기 요금에 적용된다. 침구와 식기, 수건은 이용 인원에게 맞게 마련돼 있다. 개인 위생용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용 요금]

통나무 집 (23㎡, 성수기/비수기) 6만원/4만2천원
숲속의 집 47㎡ 10만원/7만원, 53㎡ 12만원/8만4천원, 69㎡ 16만원/11만2천원
산림문화휴양관 (47㎡) 10만원/7만원
산림복합휴양관 23㎡ 5만원/3만5천원, 47㎡ 9만원/6만3천원, 99㎡ 21만원/14만7천원
백두대간문화휴양관 90㎡ 22만원/15만4천원, 202㎡ 35만원/24만5천원

[문의]

☎ 043-422-7839